



## 밥 푸는 순서

친정에 가면  
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 
보내려 하셨습니다.

어머니는  
내가 친정에 가면  
부엌에도 못 들어  
오게 하셨습니다

오 남매의  
말이라 그러셨는지  
남동생이나 당신보다  
항상 내 밥을  
먼저 퍼주셨다

어느 날  
오랜만에 친정에서  
밥을 먹으려는데  
여느 때처럼  
제일 먼저 푼 밥을  
내 앞에 놓자  
어머니가

"애 그거 내 밥이다"  
하시는데  
하셔는 것이었다



민망한 마음에  
"엄마 웬 이유...?  
늘 내 밥을  
먼저 퍼주시더니..  
하며 얼굴을 붉혔다

"그게 아니고,  
누가 그러더라  
밥 푸는 순서대로  
죽는다고  
아무래도 내가  
먼저 죽어야 안 되겠나."

그 뒤로 어머니는  
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.  
그리고 그 이듬해  
어머니는 돌아가셨다.

어머니 돌아가신 후  
그 예기를 생각하며  
많은 눈물을 흘렸다.

그리고  
남편과 나, 중에

누구 밥을  
먼저 풀 것인가를  
많이 생각했다  
그러다 남편 밥을  
먼저 푸기로 했다



홀아비 삼 년에  
이가 서말이고

과부 십 년에는  
깨가 서 말이라는  
옛말도 있듯이

뒷바라지해주는  
아내 없는 남편은  
한없이 처량할 것  
같아서이다

더구나  
달랑 딸 하나 있는데  
딸아이가  
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 
무척 힘들 것이다

만에 하나 남편이  
아프면  
어찌하겠는가...?  
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 
할 것 같다

남편을 먼저 보내고  
고통스럽더라도  
내가 더 오래 살아서

남편을 끝까지  
보살펴주고 뒤따라  
가는 게 좋겠다는  
결론을 내렸다



그때부터 줄곧  
남편 밥을  
먼저 푸고 있다  
남편은 물론 모른다

혹 알게 되면 남편은  
내 밥부터  
푸라고 할까...?

남편도  
내 생각과 같을까...?

원하건대

우리 두 사람 늙도록  
의좋게 살다가

남편을 먼저 보내고  
나중에 내가  
죽었으면 좋겠다

오늘 아침도  
그의 밥을 먼저 퍼서  
상에 올린다



?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 ?





우리 벗님들~!  
健康조심하시고  
親舊들 만나  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  
餘裕롭고 幸福한  
나날 되세요~^

